

“모든 노동자의 고용 위해 함께 싸운다” ...

금속노조 2차 파업

전국 9곳서 중대재해·노조탄압·고용불안 해결 요구
조합원 2만5천여 명, 고용 보장·원청교섭 쟁취 파업

금속노조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26일 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날 전국 9개 지역에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8·26 2차 파업대회’를 열었다. 지난 7월 15일 1차 파업과 8월 21일 자동차업종 공동파업에 이어 다시 파업에 나서 전국의 현안 투쟁을 산별노조의 공동투쟁으로 결집시켰다.

이번 파업에는 중대재해와 노조탄압, 이주노동자 표적해고, 해외공장 설립에 따른 고용불안 등 각 지역과 사업장의 현안이 공동 의제로 올랐다. 금속노조는 개별 사업장의 투쟁을 산별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묶어 사용자와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경기지부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한 계양전기 앞에서 고용보장을 내걸고 파업대회를 벌였다. 서울지부, 한국지엠지부, 만도지부 등 수도권 조합원들

은 경기 성남시 HL만도 글로벌R&D센터 앞에 모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 중대재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유족과 노동조합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가운데 회사가 작업중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케어솔루션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지난 4월 시작한 교섭에서 사측이 2.1%의 낮은 수수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노조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진행된 LG전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방문점점 일정이 뒤엎키면서 노동자들은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해 일정을 다시 잡고 항의까지 감당했다. 실질적으로 업무 절차의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스템 변경 사실조차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지만, 회사는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전산 장애로 늘어난 업무에 대한 보상과 미지급 임금 지급, 실질적인 수수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8월 4일부터 스팀·주말 점검과 재방문 등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전국의 힘이 집중됐다. 충남지부는 파업 돌입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하나머티리얼즈 천안사업소에서 파업대회를 열었다. 대구·구미·경주·포항·부산양산지부는 한 달 넘게 전면파업을 이어온 리노공업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우고 정당한 몫을 요구하자 회사가 직장폐쇄와 노조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북지부는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위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강 김제공장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었다. 정주·이주노동자 공동 파업으로 이주노동자의 비자 연장과 재계약 여

부 공정 평가 내용의 단체협약을 쟁취했지만, 일강 사측은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을 잇달아 거부했다. 이미 조합원 15명이 해고됐고 연말까지 24명의 추가 평가가 예정돼 있다. 사측은 농성장을 쇠사슬과 철조망으로 봉쇄했다. 참가자들은 표적해고 철회와 단체협약 이행,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일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승까지 행진했다.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고, 경남지부는 이엠코리아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파업대회를 벌였다. 울산지부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는 태화강역 앞에 집결해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과 동희오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차그룹에서도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에도 원청 사용자들은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3권을 보장하고 초기업·원청교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